

총선 D-21

민주당 공천 결과 분석

유권자·후보자 실망시킨 '그들만의 잔치'

공심위 운영의 묘 못살려 '개악 공천' 원성
탈락자 무소속 출마 불보듯... 선거관세 요동

통합민주당의 공천작업은 후보자와 유권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통합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의 자본싸움, 정치 문외한들로 구성된 공심위, 무원칙한 심사기준 등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각종 변수가 겹치면서 통합민주당의 '개혁 공천'은 '공천 개악'으로 전락했다.

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서도 전체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천 대표는 광주 서구 갑·을, 광산구 갑 등 광주·전남 5개 선거구를 전략 공천지역으로 해 줄 것을 고집, 공천일정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정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불공정 논란 부른 여론조사>=2~3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는 매번 불공정 시비를 불렀다. 10여 년 전 후보의 직함을 여론조사에 사용, 해당 후보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1, 2위 후보 간 심사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초경합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정 후보 공천탈락'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는 등 어수선 여론조사가 되풀이됐다.

는 공천 후보자 압축과정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광주·전남권 탈락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은 관련서류를 제시하거나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후보들의 불만을 샀다. 또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을 의결한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미루거나 미봉책으로 일관, 결과적으로 공천과정에서 불신과 의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샀다.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관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천에서 '물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구 민주계는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한다면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며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탈락 후 무소속 연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관급 정치 신인들도 공천 탈락에 불복,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공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는 박위원장과 손·박대표의 모습에서 최근 공천과정의 불협화음을 엿볼 수 있다

<운용의 묘 못살린 공천 기준>=박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 초심자들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 초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기준을 내세워 박지원, 김홍업 씨 등 소위 '거물'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공심위는 후반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에 집착하면서 벌금형에 그쳤거나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던 칼날을 들이대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계파 갈등, 구태 정치 재현>=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 나눠먹기, 지분다툼,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등록 시

Table with 7 columns: 4·9총선 대진표, 구분, 민주당, 한나라, 민노, 평화통일가정, 통일한국, 무소속. It lists candidates for various districts across different parties.

Table titled '통합민주당 4차 공천자' listing candidates for various districts (Seoul, Gyeonggi, etc.) and their party affiliations.

■ 여론조사 경선 맹점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초경합지역에 도입한 국민여론조사 경선이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공천 해신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적합도 조사 현역에 절대 유리
정치 신인들엔 높은 진입 장벽

지역은 17곳. 이중 현역 의원은 이상경 의원 등 4명이 탈락했다. 23.5%의 현역 교체율을 보인 것이다. 장경수 의원의 경우도 이날 탈락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후보자 간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공심위가 탈락 결정을 내렸다.

인지도가 결과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날 현역의원이 경쟁한 5개 지역의 경우 단 한 곳만 현역 의원이 탈락했다. 여론조사경선을 할 경우 70~80%는 현역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민주계 '소멸' 손학규계 '약진' 정동영계 '쇠락'

■ 민주 세력판도 바뀌나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당내 역학 구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08 Spring Festival (2008년 봄 축제) featuring a scenic mountain landscape. It lists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including a Live Concert and a Spring Festival Fair.